

2019 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인문교양: 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형」 시리즈 강좌 (6)

주제: 일본 총합상사의 역할 탐구와 전망

제 6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강좌는 쉬신칭(徐興慶) 총장이 국립 타이중과학기술대학(國立臺中科技大學) 일본연구소 소장 및 응용 일본어과 대학원 부교수인 리리런(黎立仁) 학과장을 문화대학교로 초대해 강연을 했다. 리 교수는 일본 경제와 기업, 대만과 일본의 경제 무역을 전공하여 일본 미쓰비시상사에서 취업했었다. 오늘 강연 내용은 학술적 연구결과와 시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일본 '총합상사'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다. 리 교수의 강연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강연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일본의 총합 상사와 일본 경제, (2) 총합 상사와 일본-대만 기업의 전략적 연맹, (3) 「신남향정책」과 일본-대만의 전략적 연맹이다. 정식으로 강연을 하기 전에 리 교수는 우리의 의혹을 풀어주었다. 그가 말하길 '総合商社'는 총합 전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 総合商社를 '총합상사'가 아니라 '총합상사'로 번역하기를 권했다. 리 교수는 또 일본 총합상사는 일본 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총합 상사를 통해서 일본 경제의 미래 방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합 상사 경영의 핵심 자원은 인재, 자본금, 정보, 브랜드 파워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등재된 브랜드 파워 경영 개념은 브랜드를 통해서 고객들의 재구매율과 구매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7 대 총합 상사가 있으며 일본 GDP 20%를 차지함으로 비중은 전보다 낮지만 질적으로 보면 크게 성장한 것이다. 40 년대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총합상사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변천해 왔으며, 특히 경제 시스템의 전환기인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총합상사의 기능이 (1) 환경, (2) 건강, 의료, 간호, (3) 정보, IT, 매체, (4) 첨단 기술 개발로 전환되었다.

현재 총합상사는 대만뿐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등지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독특한 총합상사 기능을 활용해 대만-일본 기업 간에 전략적 연맹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상사의 강점은 무역으로 해외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총합상사의 해외 공업구역에서의 개발은 직접 투자로 일본 기업 간의 연계를 쌓고 해외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사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발전하는 동안 고객들에게 해외시장이나 외국의 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의 공공시설사업 시행을 앞두고 건설회사, 제조사, 사업 운영 회사,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이들 기업이나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에 큰 기여를 한다.

일본-대만 상업 전략적 연맹의 상보 관계를 통해 일본과 대만은 경제, 상업에 튼튼한 상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의 강력한 상호 신뢰 관계 덕분에 중요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아시아를 생산, 수출의 근거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연맹을 통해 아시아를 사업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일본-대만 사업의 전략적 연맹은 중국, 아시아 등 대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총합상사가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 신용력, 상업의 창조력 등을 활용하는 것은 큰 강점이다. 대만에 있는 총합 상사는 해외지점들이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대만 양쪽의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대만의 파트너 관계를 맺어 줄 수 있고 일본-대만 기업의 전략적 연맹을 맺는 동시에 양국이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리 교수는 일본-대만 전략적 연맹의 역사가 길고 두터운 신뢰관계에 기초해 각각의 강점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아시아 등 제 3 국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가진다고 본다. 최근에 양국 서비스업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발전에 큰 성과를 보인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특히 중국 시장)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원가 절감을 통해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은 상호 강점을 발휘하며, 한발 더 나아가 상업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서로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사완영(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